

#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 \* 첫 번째날 \*

## 전도의 정의

### 1. 전도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업이자 지상 명령입니다.(딤후 1:3)

전도는 하나님의 지상의 가장 큰 사업입니다. 전도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사업을 하다보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뤄집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로 세상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꺼냈으면 거기에는 이상도 오고, 평안도 오게 됩니다. 디모테 후서 4장에서 바울 선생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꼭 전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지상명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하면서도 전도의 명령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확실히 배우고 하나님의 명령을 엄히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 전해야 됩니다! 절대로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있듯이 전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전해서 자꾸 번져가게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 2. 전도는 하늘의 메시지 전달입니다(막 1:38)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찾아 내고, 대화하고, 친구로 삼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친해지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최대의 첨단의 이 세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떼떽하며, 상당히 고상하고, 멋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사람들은 가장 목직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 3. 전도는 영원한 기쁨이자 복을 받게 하는 기본입니다.(시 126:5)

전도를 안 하는자는 평생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할 일 못했다고 책망 받지만, 전도하는 자는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평생 칭찬 받습니다. 예수님도 오직 전도하시다 생명의 끝을 내셨습니다. 전도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전도를 안했으면 어떻게 하늘 모시고 사랑과 진리 속에 살 수 있었겠습니까. 전도는 모든 복을 받게 하는 것의 기본입니다. 전도해야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열어주심을 깨닫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러하듯 모두 그러해야겠습니다.

### 4. 전도는 가족 찾기, 애인 찾기 운동입니다.

전도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가족 찾기 운동”이며, “애인 찾기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 같은 전쟁이 일어난 곳에서 ‘혹시 내 애인이 살았나 죽었나’하며 찾고 돌아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전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 전도의 필요성

### 1. 추수의 때, 거둘 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마 9:38)

추수의 때에 추수하지 않으면 곡식은 옹드러져 버리고, 결국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자도 제 때 못 캐면 썩어버리고, 고추도 제 때 못 따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과일도 제 때에 못 따면 겨울철에 다 얼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세계에서도 조상들이 많은 씨앗을 뿌려 놓고 갔으며 이젠 추수의 때가 되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몇 달이 지난 가을에 추수하듯이, 복음도 한 번 뿌려 놓으면 금방 거두어 들이는 것이 아니라 몇 십년 후에 거두어 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거두어 들이지 않으면 거두어 들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두어 들이냐? 가서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전도하면 온다는 것입니다.

### 2. 전도는 사도의 시대적 사명이기 때문입니다(딤후 1:3)

수천 년 동안 진리의 영웅열사들도 캐내지 못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이 귀한 천주적 말씀이 본인 하나에게만 쓰여지고 말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여름철 가뭄 땅에 비가 와서 산꼭대기 눈에 물을 댔으면 그 귀한 물을 밭의 논에도 내려 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눈에만 가뭄놓고 있으면 그 물이 논두렁에서 터져 버립니다. 그와 같이 복음을 자기에게 귀하게 썼으면 다음 사람에게 인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전도를 하지 않았다면 자기가 스스로 여기 찾아 오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전도를 해서 이렇게 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3. 전도는 신앙인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마 24:19)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여름철에 잎이 무성하고 꽃이 무성하던 열매가 열매를 안 맺어서, 예수님이 지나가다 열매를 구했을 때 열매가 없었으므로 벼락을 맞는 길가의 무화과나무이야기가 나옵니다. 길가에 서있는 무화과나무는 모든 사람에게 기대를 크게 주는 나무가 아니겠습니까? 많이 바라고 기대하며 쳐다보았던 나무인데... 어느시대를 막론하고 새로운 섭리역사가 시작되면 전도하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은 바로 “애기 낳아라.”하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때, “나는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다.”라고 하셨듯이 새로운 종교가 시작되는 것은 결혼하는 것과 같아서 결혼한 사람들에게 “애기 낳아라.”하듯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적절한 표현입니까?

### 4. 전도가 바로 자기 구원이기 때문입니다(롬 1:16)

섭리사에 온지 1년, 2년, 3년이 가도 전도를 안 하면 안됩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이 병든 사람입니다. 문제가 심히 큼니다. 모두가 전도를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생활 속에서 엄히 다루실 것입니다. 느낌이 약간 있을 때 전도를 안 하면 진짜 혼납니다. 전도를 안 한 사람들은 결국 섭리사도 나가게 됩니다. 결국 절대적으로 심판 받습니다.

### 5. 전도함으로 사탄의 발판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막 1:39)

전도하라. 전도하는 것은 내가 외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외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생명도 존속시킬 수 있습니다. 전도를 많이 해 놓으면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적게 해 놓으면 우리를 반대하는 자가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전도를 많이 하면 반대하는 자가 못 일어납니다. 축구에서도 우리끼리 해서는 그들을 당할 수가 없는데 전문 선수들을 데려다 놓으니까 완전히 혼들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많이 해 놓아야 우리를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 <생각해보기>

\* 만약 전도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도가 왜 필요한지 내가 생각하는 것을 적어봅시다.

\* 성경에서 전도를 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전도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찾아봅시다.

##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 \* 두 번째날 \*

### 전도의 유익

#### 1. 전도하면 소원을 들어줍니다.

자기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전도함으로 다 풀어집니다. 전도를 한 번 하면 죽을 것도 살고 자신의 죽을 것을 전도함으로써 살기도 합니다. 전도하면서 대신 몸을 건강하게 해 달라 하고,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전도를 잘 함으로 인해서 별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달라고 하면 돈으로 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명예로 해결해 주십시오.”하면 명예로 혹은 “저는 말 좀 잘하게 해 주십시오.”하면 말도 잘 하게 해 줄 것입니다. 전도가 그렇게 크고 세력이 그렇게 강합니다. 전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주리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 2. 전도하면 자신이 은혜를 받습니다.

자신이 전도함으로 옆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본인이 은혜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전도를 하면 본인이 거의 80%, 90% 정도 은혜를 받고, 나머지 10%정도를 옆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저 사람이 전도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은혜 받았어.’ 이 정도지요. 배고픈 사람이 밥 먹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이 얼마나 은혜 받았습니까? ‘아, 정말로 맛있게 먹는다. 정말 은혜 받았다. 나도 그렇게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밥을 먹은 사람에게 무슨 은혜를 받았나 물어 보십시오. 밥 먹어서, 배고픈 허기증이 없어지는 은혜를 받았고, 뼈쩍 마른 사람이 살찌는 은혜를 받았고, 또 힘이 나는 은혜를 받았고, 수십 가지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옆 사람은 배가 부른 은혜를 못 받았을 거예요. 또 힘이 나는 은혜를 못 받았을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 그 맛이 기가 막히게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맛을 꼭 느끼고, 전도로 인해서 받은 영적인 은혜와 쾌감을 꼭 느끼시기 바랍니다.

#### 3. 전도하면 영원한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전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전도하면 영원히 빛나는 별같이 해 준다고 했고 계시록에는 전도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이 자기의 면류관 역할을 해주고, 자기의 영화로운 일을 해주고, 자기의 큰 힘이 되어주고, 자기의 큰 능력자가 되어주고, 자기의 부귀영화의 대상이 되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한 사람이 바로 자기의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전도한 자들은 결국 자기 구원을 이루는데 더욱 철성벽이 되고 있음을 깨닫고 전도를 쉬지 말아야 되었습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기쁨거리요, 자랑거리며, 자신이 힘들 때 위로자가 될 뿐 아니라 영광의 베풀거리입니다. 전도하므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영원한 복의 구원을 약속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같이 큰 것은 없습니다.

#### 4. 전도하면 부모의 심정을 느낍니다.

전도를 하면 부모의 심정을 느낍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받는 영광은 참으로 오래갑니다. 전도를 하면 그런 영광을 바로 받습니다. 부모가 아기를 키우는 것은 고생하고, 걱정하고, 눈물겹고, 흰머리나고, 머리도 아픕니다. 그러나 앞날을 보고 키우는 것입니다. 나무도 작은 나무는 불품없고, 있으나마나 이지만 그 나무가 커서 숲이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앞날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 전도자의 자세

#### 1. 전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이 충만히 있어야 됩니다.

(입 1:3)

전도를 하는데 진리와 말씀이 충만히 차고 넘쳐야 전도하는데 힘을 내고, 의식을 하고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전장에서 무기가 좋아야 하듯이 어려운 환난이 있을 때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위로 받고, 힘을 받고, 권세 받고, 능력을 받아서 모든 것을 해치고 나가게 됩니다.

#### 2. 전도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에 담대해야 됩니다.

(행 18:9-11)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위축감에 의해 ‘이 복음을 전하면 잘 이해할까? 오해를 받지 않을까?’ 하며 조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담대히 시범을 보이며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동참하여 같이 복음을 전하며 시대를 감당해 나갔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11절까지 보면 주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다 보면 말씀에 접할 많은 사람이 있고 너와 같은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으니 말씀을 전하라! 그리하면 듣고 모두 따라 오리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비굴하게 굴지 않고 복음을 위대하게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함부로 평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도 큰 자본입니다.

#### 3. 여유 있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시대의 크나큰 것을 주었습니다. 돈으로, 금으로 은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말씀을 주어 구원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침단의 이상적인 이 시대의 엄청난 진리 말씀으로 인해서 이상적 구원을 받았으니 그 대가를 해야 되는데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여유 있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초반기부터 초전박살로 때려잡고 들어가야 합니다.

#### 4. 환난 핍박이 따르더라도 전도를 하십시오.(딤후 4:5)

성경에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도 다 쓰지만, 키워서 나중에 써먹을 때 보람찬 것이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로 제일 처음에는 씁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쓰더라도 전도를 하십시오. 핍박과 어려움은 신앙생활을 안해도 있습니다. 그것을 무슨 핍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장차 올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핍박은 영원한 세계로 가는 말씀을 만느라 오는 핍박입니다.

#### 5.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행 5:42)

전도의 불이 붙으면 수백 명이 그 하나를 못 따라갑니다. 그 사람 혼자서 무더기로 막 쏘고 돌아다닙니다. 전도에 불이 붙은 사람이 한 두명 있다면 이 교회가 계속적으로 채워져 나갑니다. 특별히 집회 때 데려오는 것도 크지만 연속적으로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이 크다는 것입니다.

### <생각해 보기>

\* 사망 권에 있는 사람이 생명권으로 오는 것만큼 큰 일이 또 있을까요? 전도의 유익들에 대해 적어봅시다.

\*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전도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전도에 성공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생각해보고 적어보세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 \* 세 번째 날 \*****전도의 방법****1. 기도로 준비하십시오(골 4:2)**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나는 원인은 기도를 안 해서 형제의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인생길 못 찾아서 고통당하며 왔다 갔다 했던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달라고 불같이 기도를 해 보십시오! 저는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한 것입니다.

**2. 의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할 때는 상대를 의식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서서히 내 놓아야 합니다. 자기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 놔다가 빨리 하십시오. 기회를 봤을 때 빨리 하라는 것입니다. 전도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다가 용기를 잃지 말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3. 일단 시작하면 됩니다.**

전도라는 것은 시작을 해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일은 자꾸 저질러야 큰 일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현실의 일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태평양 바다에 그물을 내리듯이 그물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그물로 고기를 몰아야 됩니다. 고래도 몰고 오고 상어도 몰고 오고 각종 각색의 고기를 몰아 붙여야 됩니다.

**4. 1/20, 1/30....로 되므로 낙심치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자꾸 안 온다고 낙심합니다. “아이구, 나는 이제 안 되겠다.”하지 말고 그 사람 아니라도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을 해야 됩니다. 전도할 때 10:1 보는 사람 너무 욕심이 많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80명 얘기하니까 하나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5. 말씀듣고 바로 전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전도가 잘 되는 것도 어느 때이고 하니 말씀을 듣고서 약 3년동안에 참 좋습니다 말씀듣고 3년 넘었을 때는 가르치는데 좋습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더 빠른 것은 20일 말씀듣고 바로 전도해야 합니다.

**6. 계획을 크게 잡아서 전도하십시오.**

전도를 할 때도 올해에는 정말로 한 명은 꼭 전도해야지라고 하면 한 사람만 전도해도 놀랍니다. 그러나 ‘까짓거, 금년에는 100명을 전도해 버릴꺼야.’라고 하면 한 사람만 하면 10명을 전도해도 ‘이거 큰일났네, 한 달에 10명을 해야 100명을 채울 수가 있는데...3달 동안 10명밖에 못했으니... 큰일났네.’합니다. 나는 불을 찰 때도 머리에다 20골, 30골을 골인시키겠다고 넣어 두고서 참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2골을 넣어야지’하기 때문에 2-3골밖에는 못 넣지만 나는 20-30골을 넣는다는 계획을 머리 속에 넣고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도 똑 같은 것입니다.

**7. 철장같은 말씀으로 깨부수어야 됩니다.(계19:15)**

말씀을 전할 때의 그 재미와 기쁨, 즐거움도 말씀을 전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것을 느끼려면 다들 말씀을 전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의 철장같은 말씀을 가지고 가서 잘못된 관을 깨부수며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확신을 갖는 것에 대하여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일입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치고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단번에 내리쳐야 합니다. 그 얼마나 멋있고 재미있는 일입니까?

**8. 한때라고 생각하고 열 일 제쳐놓고 하십시오.**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 일을 제쳐놓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 가다가 ‘하이고, 저 사람 탄 날 전도해야지.’하면 안됩니다. 그 날 눈에 띄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 날 지나면 만나기 힘들습니다. ‘찬스는 이때다! 부딪혀 볼 만한 때다!’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를 해야 될 사람이 전도를 안 하니까 서로 싸움을 붙게 만들어서 싸우다가 이야기를 하게 해서 연결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무조건 상대의 시간을 최대한 빼앗아서 가르쳐야 되겠구나! 공부 다하고 먹을 밥 다 먹고 전도를 못합니다! 전도할 사람은 어디서라도 그냥 해야지 전도가 됩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언제 그렇게 하셨나 보니까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셨다는 겁니다. 사실상 아흔 아홉 마리를 위해서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9. 먼저 고통받는 자를 데려오십시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전도를 할 때 중풍병자를 메어 온 자들 같이 고통받는 자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어떤 병든 자가 아니라 현실에서 안다고 하나 잘못된 길을 계속 가면서 문자적 신앙에 허우적거리며 중풍병자 같이 마비된 자들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기>**

\* 전도를 위해서 마음을 줄이고 기도를 많이 하지만 지혜가 부족하고 설불리 해서 오히려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있어서 꼭 주의해야할 점을 적어봅시다.

|                                                                                                                                                                                                                                                                                                                                                                                                                                                                                                                                                                                                                                                                                                                                                                                                                                                                                                                              |    |                  |
|------------------------------------------------------------------------------------------------------------------------------------------------------------------------------------------------------------------------------------------------------------------------------------------------------------------------------------------------------------------------------------------------------------------------------------------------------------------------------------------------------------------------------------------------------------------------------------------------------------------------------------------------------------------------------------------------------------------------------------------------------------------------------------------------------------------------------------------------------------------------------------------------------------------------------|----|------------------|
|                                                                                                                                                                                                                                                                                                                                                                                                                                                                                                                                                                                                                                                                                                                                                                                                                                                                                                                              | 날짜 | 2013년 9월 10일 목요일 |
| <b>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 * 네 번째 날 *</b>                                                                                                                                                                                                                                                                                                                                                                                                                                                                                                                                                                                                                                                                                                                                                                                                                                                                                             |    |                  |
| <b>전도의 원리</b> 를 나무 심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    |                  |
| <b>첫째, 세상에 나가 산이나 들에 가서 아주 좋은 나무를 골라야 합니다.</b><br>월명동 나무를 골라 오듯이요. 3년 6개월 고르고 다녔습니다. 키가 크고 수형이 잘 잡힌 잘생긴 아름답고 멋있는 나무를 골라야 합니다. 수형이 잘 잡혔다는 것은 동서남북으로 여러 가지 채질이 많고, 생각이 넓고, 품위도 갖추어진 자를 말합니다. 아름답고 뛰어나고, 생각도 뛰어나고, 느낌도 있고, 철학적이고, 지식적이면서도 사람이 선하고 착한 마음이 있으면 수형이 잘 잡힌 나무와 똑같습니다. 나그네들도 바쁘지만 그 나무 밑에 덤석 주저앉았다가 명상이라도 한번 하고 가고싶은 생각이 날 정도로 품위 있는 나무를 고르듯이 사람을 골라야 합니다.                                                                                                                                                                                                                                                                                                                                                                                                                                                                                                                                                            |    |                  |
| <b>둘째, 그 나무를 캐울 수 있는 진입로를 닦을 수 있는가를 확실히 파악하고 끌고 와야 합니다.</b><br>사람도 전도해서 끌고 올 수 있는 통로가 있는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통로란 전도하는 자를 이끌어 오는 여러 가지 길들입니다. 그냥 확 끌고 오면 안됩니다. 만일 우리가 횃끝에서 나무를 캐오는데 나무만 덤석 샀는데 오는 길을 못 닦는다면 가져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만 뺏긴 것입니다. 모든 법칙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십시오. 캐 수 있는 불도저가 넘어갈 수가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나는 나무 캐러 갈 때면 그 측량을 다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능 할 때 서서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서로 상의도 하고 그래야 합니다.                                                                                                                                                                                                                                                                                                                                                                                                                                                                                                                                                      |    |                  |
| <b>셋째, 나무를 사오기 전에는 확실한 나무 주인을 만나야 합니다.</b><br>공연히 나무 지키는 사람이나 나그네와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나무의 주인과 이야기를 해야합니다. 이와 같이 전도 대상을 놓고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합니다. 임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합니다. 기독교가 임자인가, 천주교가 임자인가, 불교가 임자인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요셉도 자기 형제들을 먼저 파악했습니다. 그 사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돌려가면서 파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려고 사마리아 여인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연애하는 사람이 있는가, 타락했는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그 전에 파악해야지, 말씀 들어간 다음에는 입을 다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미 그 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파악하듯이 파악해야 합니다.                                                                                                                                                                                                                                                                                                                                                                                                                                                                          |    |                  |
| <b>네번째, 돈을 주고 나무를 사와야 문제가 생기지 않듯이 전도자를 놓고서 정당하고 충분한 로비를 해야합니다.</b><br>인생의 로비를 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선물도 사줄 수 있으면 사주면서 친해져야 합니다-3970. 이것이 로비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는 로비를 해야합니다. 나무를 그냥 준다고 해서 가져오면 그 다음부터는 환경이 되어도 안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합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편한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에 "내 친구도 데리고 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어려우면 자기 친구도 데려오면 그럴까봐 안 데려온다는 것입니다.                                                                                                                                                                                                                                                                                                                                                                                                                                                                                                                                                                                      |    |                  |
| <b>다섯번째, 나무 분을 때리기 전에는 필요 없는 가지를 자르듯이 전도할 대상이 세상으로 뻗은 생각, 행동, 꿈, 야망등 무성한 가지들을 말뚝을 가르치면서 서서히 툭툭 쳐나가기 시작해야 합니다.</b><br>툭으로 자르고, 낫으로 쳐내리고 그러면서 무성한 잎사귀를 1/10만 남기고 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잎사귀가 많으면 물기가 다 잎사귀로 빠져 버립니다. 그렇듯 잎사귀를 치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가도 다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서서히 전조를 해야합니다. 나무 잎사귀를 다 따 놓고 분 돌리는 것을 여러분은 다 봤을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라는 시인이 나올 때까지 해야합니다. 그 다음에는 나무 밑둥치 1미터까지 분을 쓰듯이 세상의 사랑과 물질과 학문과 각종 꿈과 이상등 육적인 생각들을 모두 적당한 거리에서 잘라 버려야 합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서서히 잘라 버리면서 지혈시키면서 캐야 합니다. 송곳 뿌리가 나올 때까지는 파악합니다. 소나무는 송곳 뿌리를 자르면 무조건 죽습니다. 다른 뿌리는 잘라도 살지만 송곳 뿌리만큼은 자르면 죽습니다. 송곳 뿌리란 양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입니다. 그것을 잘못된 철학이라고 자르면 안됩니다. 그러면 반항심이 일어나서 뛰어 버립니다. "이것은 내가 20-30년 정직하게 살아온 것인데 왜 자르느냐?"합니다. 뿌리를 자를 때 토양토를 바르면서 분을 쓰듯이 전도 대상의 세상 꿈을 자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살살 치료도 해주고, 이야기도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꿈을 주신다고 해야합니다. "네 꿈 갖고 살아왔지만 안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더 큰 다른 꿈을 주신다. 내가 확신한다. 내가 증인이다"고 해주어야 합니다. 은혜와 말씀으로 지혈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    |                  |
| <b>여섯번째, 약한 포크레인으로 옮기면 안됩니다.</b><br>그랬다가는 높은 곳에서 옮기다가 분이 다 깨집니다. 그래서 큰 포크레인으로 하듯이 힘있는 사람이 해야합니다. 전도해서 옮길 때도 힘있는 전문가가 옮겨야지, 어린애들이 하다가는 분이 다 깨집니다.                                                                                                                                                                                                                                                                                                                                                                                                                                                                                                                                                                                                                                                                                                                                                                             |    |                  |
| <b>일곱번째, 다시 옮겨 심지 않도록 확실한 위치를 정해놓고 심어서 거기에 박히게 해야 합니다.</b><br>사명을 주고 자기 위치를 정하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물을 주고, 좋은 위치에 심어야 합니다. 사람을 가리는 곳에, 답답한 곳에 심으면 안됩니다. 멋있고 아름다운 곳에 딱딱 심어놓으면 너무 좋다고 합니다. 속이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잘린 뿌리에는 약을 발라주어야 합니다. 충분한 사랑과 진리를 심어주어야 합니다.                                                                                                                                                                                                                                                                                                                                                                                                                                                                                                                                                                                                                                                        |    |                  |
| <b>여덟번째,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주대를 동서남북으로 단단히 세워주어야 합니다.</b><br>반드시 꺾박과 어려움이 오게 되어있으니까 몇 명이 그 신입생을 관리하고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세상의 물질에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의 이성애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주대를 심어주어야 합니다. 사랑의 바람에 흔들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자를 세워주고, 명예와 세상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자를 철통같이 세워주어야 합니다.                                                                                                                                                                                                                                                                                                                                                                                                                                                                                                                                                                                                                                                                                     |    |                  |
| <b>아홉번째, 나무를 옮긴 후에는 나무가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주사를 놔주어야 합니다.</b><br>이 때에 벌레와 해충이 침범하면 바로 병들어서 죽어 버립니다. 석막리에서 3년동안 해서 분마다 옮겼는데도 한 나무가 죽어 버렸습니다. 너무 좋은 나무인데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가를 봤습니다. 물을 안 주어서 죽었다고도 했지만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라 충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충이 먹었는데 그것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하도 강하게 먹어들어와서요. 몸이 약해져서 그런 것입니다. 몸이 약해지면 병들니다. 사람들도 섭리사에 오면 약해집니다. 그래서 충에 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듣지 말도록 옆에서 말씀으로 소독을 탁탁 해주어야 합니다. 신경을 써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침범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소독을 꼭 해주어야 합니다.                                                                                                                                                                                                                                                                                                                                                                                                                                                                                 |    |                  |
| <b>열번째, 추위가 올 때에 얼어죽지 않도록 나무를 푹푹 싸주어야 합니다.</b><br>계절에 맞추어서 퇴비를 꼭 해주어야 하고, 가뭄이 들지 않도록 물을 항상 퍼부어 주어야 하고, 은혜의 말씀의 퇴비를 충분히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3년 동안 보호해주면 나무가 크고 수형이 서서히 잡혀서 시퍼런 나무가 되고 "이제 살았다. 확실하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때부터는 서서히 손길이 줄어가는 것입니다.                                                                                                                                                                                                                                                                                                                                                                                                                                                                                                                                                                                                                                                                                       |    |                  |
| <b>&lt;생각해보기&gt;</b><br>*내가 전도하려는 친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아니면... 지금 나의 단계는?                                                                                                                                                                                                                                                                                                                                                                                                                                                                                                                                                                                                                                                                                                                                                                                                                                              |    |                  |

|                                                                                                                                                                                                                                                                                                                                                                                                                                                                                                                                                                                                                                                                                                                                                                                                                                                                                                                                                                                                                                                                                                                                                                                                                                                                                                                                                                                                                                                                                                                                                                                                |  |                                                                                                                                                                                                                                                                                                                                                                                                                                                                                                                                                                                                                                                                                                                                                                                                                                                                 |  |
|------------------------------------------------------------------------------------------------------------------------------------------------------------------------------------------------------------------------------------------------------------------------------------------------------------------------------------------------------------------------------------------------------------------------------------------------------------------------------------------------------------------------------------------------------------------------------------------------------------------------------------------------------------------------------------------------------------------------------------------------------------------------------------------------------------------------------------------------------------------------------------------------------------------------------------------------------------------------------------------------------------------------------------------------------------------------------------------------------------------------------------------------------------------------------------------------------------------------------------------------------------------------------------------------------------------------------------------------------------------------------------------------------------------------------------------------------------------------------------------------------------------------------------------------------------------------------------------------|--|-----------------------------------------------------------------------------------------------------------------------------------------------------------------------------------------------------------------------------------------------------------------------------------------------------------------------------------------------------------------------------------------------------------------------------------------------------------------------------------------------------------------------------------------------------------------------------------------------------------------------------------------------------------------------------------------------------------------------------------------------------------------------------------------------------------------------------------------------------------------|--|
|                                                                                                                                                                                                                                                                                                                                                                                                                                                                                                                                                                                                                                                                                                                                                                                                                                                                                                                                                                                                                                                                                                                                                                                                                                                                                                                                                                                                                                                                                                                                                                                                |  | 2013년 9월 11    금요일                                                                                                                                                                                                                                                                                                                                                                                                                                                                                                                                                                                                                                                                                                                                                                                                                                              |  |
|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 * 다섯 번째 날 *                                                                                                                                                                                                                                                                                                                                                                                                                                                                                                                                                                                                                                                                                                                                                                                                                                                                                                                                                                                                                                                                                                                                                                                                                                                                                                                                                                                                                                                                                                                                                                     |  |                                                                                                                                                                                                                                                                                                                                                                                                                                                                                                                                                                                                                                                                                                                                                                                                                                                                 |  |
| <div>전도시 주의점</div> <div>1. 이성문제를 주의하십시오.</div> <p>전도시 조심할 것도 많이 있는데 전도하러 갔다가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빠 오빠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여보 당신 하는 지 오지를 앓더라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지혜없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러갈 때 전도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도 잘 보살피고 잘 해야 됩니다. 혼자 나가지 말고 둘씩 셋씩 해서 전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심력을 가지고 잡아당겨서 쫓아다니지 말고, 전도할 때는 반드시 끌고 와 버리십시오. 자기를 좋아하면 볼 치듯이 강사들한테 패스해 버리십시오. 이런 것을 잘 다스리고 주관하면서 가야됩니다.</p> <div>2. 혼자하지 마십시오(막 2장)</div> <p>마가복음 2장에 한 중풍병자를 네 명이 메어왔다고 했습니다. 혼자 떠메 왔으면 이 중풍병자를 못 떠메 왔을지도 모릅니다. 혼자 가서 자꾸 상대방의 말을 듣게 되면 못웁니다. 그러니까 둘이 가서 대화하고 이야기를 해 주면 테려울수 있다는 것입니다.</p> <div>3. 전도한 사람이 다시 전도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div> <p>1인 1명 전도에 대해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평야에 큰 함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50명이나 되는 많이 사람이 빠졌습니다. 마침 거기를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빠져서 시끌벅적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들을 건져주는데 있어 문제가 있었는데... 마침 그날은 그 사람이 지금껏 죽음을 각오하고 준비했던 어떤 목적을 이루는 날이었습니다. 함정에 빠진 사람을 한 사람 건져주는데 10분 걸렸습니다. 그러니 50명을 다 건져주면 500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기를 망하는 것이지요. 그때의 방법론은 본인이 딱 하나를 끄집어 내주고 그 사람에게 또 다음 사람을 끄집어 내주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p> <div>4. 가지치는 것이 중요합니다.</div> <p>전도할 때는 가지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가지를 쳐서 열매를 맺을 때 훨씬 더 종자가 좋고 이상적이라는 것입니다. 모자리 판에다 모를 그냥 그대로 놔두면 쌀을 몇 가마니 못 먹습니다. 그러나 그 높을 옮겨 논에다 심어 놓으면 50가마니, 100가마니 얻어 50배, 100배의 유익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100명이 1000명을 전도할 때 한 사람이 10명씩이나 전도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당 세 사람을 전도해서 300명이 되게 한 다음, 그들을 충성스럽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또 전도하게 되면 그것이 훨씬 더 이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든 본인도 신앙이 실하게 되고, 상대도 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섭리권으로 볼 때 그것이 훨씬 더 이상적인 전도방법이 되는 것입니다.</p> <div>5. 끝마무리를 잘하십시오.</div> <p>끝처리를 잘 해야 합니다. 곡식도 끝마무리를 잘 해야 가을에 농부의 양어개가 무너질 정도로 무겁게 메고 올 수 있듯이 끝처리를 잘해줘야 전도가 잘 마무리됩니다. 힘들게 고래를 바닷가에서 끌고 나왔는데 끝처리를 못하고 가만히 놔두니까 또 바다로 기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p> |  | <div>신앙인으로 나의 전도점수는 몇 점인지 체크해봅시다.</div> <div>아니다--&gt;그렇다</div> <div>1. 평소에 전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생활한다.    1 2 3 4 5</div> <div>2. 나는 틈만 나면 전도를 한다.    1 2 3 4 5</div> <div>3.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1 2 3 4 5</div> <div>4.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    1 2 3 4 5</div> <div>5.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즉시 움직여서 말을 걸 수 있다.    1 2 3 4 5</div> <div>6. 전도할 때 필요한 성경말씀 몇 구절을 암송하고 있다.    1 2 3 4 5</div> <div>7. 전도하다가 무시를 당하거나 욕을 먹어도 개의치 않는다.    1 2 3 4 5</div> <div>8. 전도를 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려셨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1 2 3 4 5</div> <div>9. 전도할 때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예의를 갖추기 위해 노력한다.    1 2 3 4 5</div> <div>10. 전도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    1 2 3 4 5</div> <div>11. 전도를 많이 하는 성도들을 보면 자극과 도전을 받는다.    1 2 3 4 5</div> <div>12. 지금까지 전도한 대부분의 사람들과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 2 3 4 5</div> <div>평가해보세요. 각 문항마다 체크한 점수를 합산해 보세요.</div> <div>나의 점수 (                    )점</div> |  |
| <div>&lt;생각해보기&gt;</div> <div>*위의 글에서 주인공이 전도를 하게 된 계기가 나와 있습니다.</div> <p>당신도 전도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거나 전도를 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있다면 적어보시오용~!</p> <div>* 나의 전도점수는 몇 점인가요? (                    )</div> <p>점수가 낮다면 높이기 위한 나의 실천다짐을 적어보세요~!</p>                                                                                                                                                                                                                                                                                                                                                                                                                                                                                                                                                                                                                                                                                                                                                                                                                                                                                                                                                                                                                                                                                                                                                                                                                                                                                                                                                                |  | <div>&lt;읽어보기&gt;</div> <p>언젠가 내가 사는 지역에 비행기 사고가 났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한 곳은 나의 집에서 6km쯤 되는 곳이었었는데 이 사건은 온 동네의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사고가 나고 항공사 측에서 시체를 찾아주면 현상금을 준다는 광고문을 크게 붙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시체를 찾으러 가시곤 했고 매일같이 3000명의 사람들이 시체를 찾아서 현상금이라도 받을까 하고 몰려들었습니다. 나도 철야기도를 하러가기 전에 담요와 성경 등을 가지고 나가면서 시체를 찾으면 현상금을 교회에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찾아 나선적이 있었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져서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에 “죽은 유골을 찾아 주는데도 300만원인데 산 유골을 찾아주면 내가 평생을 보장해주고 하늘나라에 오게 해주겠다”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때 책상에 앉아서 기도를 하니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체 찾는 곳에 가는 것은 그만두고 기도를 했을 때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때부터 생명의 귀중함을 깨닫고 전도에 힘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p>                                                                                                                                                                                                                                                                                      |  |

#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 \* 여섯 번째 날 \* 전도잡업 ^ ^ \*

## ○ 전도자의 자세

- 부끄러움을 피하려다가 평생, 영원까지 간다. - 사람이 덜 되어서다 -
- 불이 불으면 잘 할 수 있다. 맘만 먹으면 전도해야 예정된 뜻이 이루어진다.
- 전도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세밀히 파악해야 한다.  
(요셉이 곡식 사러 온 형제들 파악했듯이)
- 전도는 불가능하게 보지 말고 가능성만 보고서 하라.
- 10번만 찍어 봐라. 아니 지금, 그리고 우리는 도끼가 좋아서 몇 번이면 넘어간다.
- 어제는 없었는데 오늘은 있다. 비싼 집이 있으면 월 한 집도 있다.-이 것은 공식이다.
- 어제 안 되었으면 오늘은 된다니까, 오늘 안되었으면 내일은 되고, 하면 된다.- 이것이 극도이다.
- 귀찮아서라도 따라오는 게 있다. 왜냐하면 전도 안 당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 전도하는 사람보다 당하는 사람은 항상 약하다.
- 전도하는 사람은 끈기가 있어야 한다. 몇몇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못한다는 것은 사람의 큰 모순 중 의 하나이다.
- 문제는 의식하기 때문이다. 남을 도와주면서 쑥스러워 할 필요는 없다.
- 꼭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하라. (유신론, 무신론, 학문하는 사람...각각 맞게끔)
- 전도하랄 때 해아지 좀더 있으면 너무 많이 밀려와서 그 사람들 다 관리만 하는데도 정신 못 차리게 될 것이다.
- 괜히 잘못 해 놓고서 속 썩이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선생님 맘에 들만한 사람을 하라.
- 에인을 고르듯 하라. 에인으로 뽑아서 결혼할 사람이라면 그렇게 아무렇게 데려오고 싶겠는가.
- 섭리사 잔치에 와서 분위기나 잡힐 사람은 아예 오지 못하게 기도하고 하라.
- 만났을 때...말씀여전다고? 이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이 위치에서 하지 못하면 영영 올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래? 그래도 안할래? 그 사람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가?
-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 안하는 사람은 그만큼 책임분담을 못한 것이다.

## ○ 전도의 방법

- 거룩은 멀쩡해도 알고 보면 다 그놈이 그놈이다.
- 계속 자꾸 해버려 해라 그래야 는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면 원하는 대로된다.
- 전도는 사정하듯이 해서 안된다. 탁탁 땡기는 맛이 있어야 한다.
- 전도는 결국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큰 것이다. 과감하게 쿡쿡 찔러야 한다.
- 나귀를 끌고 오는데(영혼 전도) 뒷걸음질치거나 뒷 발질할지 못하게 하라.
- 치타가 사냥감을 물다가 말 수 있나? 잡았다가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잡고 보지.
- 전도는 지혜와 모략을 앞세우지 않을 수 없다.
- 사람을 배우라. 사람을 많이 만나보라. 사람을 지도하는 사람은 사람을 자주 만나야 한다.
- 자주 만나지 않으면 그 사람과 멀어진다. 강도도 매일 만나면 그 사람은 해치지 않는다.
- 자기가 못할 때는 얼른 패스를 해 줘야 한다. (여자가 남자 전도사)
- 전도라는 단어를 쓰면 거부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다.
- 그 만큼 많이 돌아다니면 그 만큼 좋은 집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수없이 해 보면 최고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다.
- 돌연변이 같이 기막힌 집(아주 험한 값에)이 꼭 있다. 많이 안 다니고서 좋은 집을 얻을 수 있겠는가?
-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에 맞는 (성격에) 그물을 씌워서 어떻게 해서든 교회로 나오게 만들어야 한다. 교회를 잘 소개해 줘 봐라. 다 놀랄 것이다. 소개할 때 비전을 보여 주도록 하라. 증거를 잘 해야 한다.
- 여러 명을 만나라.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봐야 고를 수가 있다.
-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들어가야 한다. 상대가 개고기를 좋아한다고 하면 “우리 집은 개고기 전문이다...” 이런 식으로 명명거리고 해 대줘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는 것이다. 복을 갖고 왜 쑥스러워 해?
- 한 사람이 두 사람 전도 절대 안된다. 두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 신앙이 좋을 때 해야 건강한 자식(?)을 낳는다.
- 전도는 의식하지 말고 순수하고 부드럽게 해야 한다.
- 호랑이는 토끼, 다람쥐를 잡으려고 돌아다니지 않는다. 이 골짜기까지 한 팔로 움켜 버려 조무라기는 빠져나가고 큼직한 것만 걸리면 사냥한다.
- 전화를 갖고도 전도 할 수 있다.
- 싫다는 사람도 경기장에 일단 데려다 놓으면 결국 턱을 고이고 구경한다.
- 전도 조직화해서 해야 한다.

## ○ 전도의 필요성

- 세상에서 제일 큰 일이 있다면 생명을 살려주는 일이다.
- 역사에서 남은 것은 생명밖에 없다.
- 능력보다는 슬기로 하라.
- 전도하라고 하실 때는 전도해야만 모든 것이 잘 되게, 전도한 사람에게 축복권이 돌아가게 해 놓았다. 전도해야 축복 준다.
- 선생님의 최대의 목적은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 술술 해서 안된다. 전도를 안하면 그들이 적이 된다.
- 전도를 안하면 하는 사람에게 사명을 뺏긴다.
- 전도를 안하면 능력 준 것을 써먹으니 능력이 줄어든다.
- 전도하라는 때 안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주릴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다.”는 책망을 듣게 하는 것이다.
- 고기를 한 번 잡아 보아라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
- 전도를 하지 안하면 별별 회한한 꼴을 볼 수 없다. 전도란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다.

## ○ 전도의 능력

-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을 일단 믿게만 해 놓으면 넘어겠다가도 결국 자기가 다시 일어나게 된다.
- 남의 고통을 해결해 주어야 자기의 고통도 해결된다.
- 사람을 빨리 되게 하는 게 전도하는 것이다. 전도가 사람을 키우는 첩경이다.
- 전도를 하면 꾀발이 서게 된다.
- 남을 이끌어 줄 때 힘이 오고 능력이 온다.
- 외칠 때는 늑지를 앓는 법이다..
-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전도를 해보아라. 스트레스가 없어지는가 아닌가.
- 자기의 모순을 끊어 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 붙여 놓으면 1000명도 할 수 있다.
- 방앗간에 벼를 갖다만 놓으면 다 뿔아진다.
- 불을 때면 방은 뜨겁게 되어 있다.
-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고 구심력을 동원해서 잡아당기신다.
- 전도하러 가서 보면 낫으로 잘만 자르면 줄줄줄 줄 자백한다. 말세 땀 줄줄줄 줄 자기를 실토한다고 하겠다.
- 채면이 있으니까 놓치지 않는다.

## ○ R 전도시 깨달은 말씀

-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믿어줄때 기뻐하는 법이다.도둑놈도 사기꾼도 자기를 믿어줄때 좋아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라.
- 하늘을 위해 수고했으면 하늘로부터 받고,사람을 위해 수고 했으면 사람한테 받게 되는 법이다.누구를 위해 살아주느냐에 따라 대가의 크고 작음이 결정된다.
- 도장은 판테로 찍히고 사진은 생김대로 찍히듯이 사람도 그 생김대로 쓰여진다.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그 쓰여짐이 좌우된다.

\* 내가 나가서 전도를 한다면 어떠한 이야기를 할 것인지 짧은 몇 마디를 구상해서 적어보세요,

\* 이번주 QT가 자신에게 준 변화는 무엇인가요?

## ( 9단계 전도법 )

‘준비와 작전, 선택, 파악, 전도, 전초, 말씀 가르침, 관리, 사명, 행정’ 9단계 방법의 전도 역사

**첫 번째,** 생명을 구원하려면 자신이 먼저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전도의 사명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약속 받고 주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예비하고 준비하여 전도의 작전을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중심인물을 뽑듯이 뽑아야 합니다. 아무나 전도하면 전도자가 오히려 해를 보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돼지 코에 금고리를 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기를 잡을 때도 좋은 고기를 골라서 잡아야 하듯이 사람의 성품도 보고 인격도 보면서 좋은 사람들을 전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철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를 나쁘게 보는 사람인지, 좋게 보는 사람인지,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인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종교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지, 전혀 싫어하는지 파악하고 문화 예술이나 그 사람이 해당되는 곳으로 이끌어줘야 합니다. 양인지, 호랑이인지, 육식 동물인지, 초식 동물인지 파악하며 대화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 파악이 되었으면 교회로, 혹은 문화 예술 장소로 이끌어와야 합니다.

**다섯 번째,** 그 사람에 해당되는 전초를 해야 합니다. 종교나 문화 예술 쪽으로 필요에 따라 진지하게 충분히 가르쳐 주고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여섯 번째,** 말씀으로 연결시켜서 가르치는 자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것을 먼저 전해주고 인계를 해줘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이를 참고하여 진지하고 재미있고 이해 되게 지루함 없이 감동과 감화로 똑똑하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만일 가르치다가 중간에 잘 안 나오게 되면 전도자를 통해서 다시 오도록 합동 작전을 해야 합니다. 왜 안 오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행여 말씀에 얹혔는지, 시간이 없어서 못 오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끝까지 확실하게 말씀을 가르쳐주되 점진적으로 가르칠 자와 보다 빨리 가르칠 자가 필요합니다. 말씀만 가르치지 말고 섭리에서 일어났던 기적을 말해주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도 말해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을 회개시키고 무지를 깨우쳐주고 그 동안 종교인들이 가르쳤던 그릇된 이론도 깨닫게 해주고 반드시 재교육을 시켜서 완전하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누구든지 잘 가르쳐야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잘 가르쳐주었으면 관리를 해야 합니다. 악한 자들의 폐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해주고 주일을 지키고 모든 공적 집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화초에 물을 주고 퇴비하고 해충을 소독해주고 온도를 조정해주듯이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전도되어 새 시대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감동된 자들에게도 전도 방법을 가르쳐주어 전도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세상의 이성과 술과 담배, 사망에서 어울리던 일들을 끊어버리게 기도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충성된 사람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철저히 가르치며 관리해야 합니다.

수시로 전화하고 만나줘야 합니다. 아기를 낳으면 그 엄마가 불철주야 아기를 관리해야 되듯이 신앙으로 새로 탄생된 생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절대 제대로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역자는 은혜와 진리의 불같은 말씀을 전하여 그들의 믿음을 튼튼하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 놀리지 말고 새로운 일을 맡겨 하늘과 땅을 위해 충성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일을 맡기지 않으면 공적이 없으므로 뿌리 깊이 박히지 않아 섭리의 의욕심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입생일지라도 꼭 사명을 주어 일을 하도록 해주고 직접 일하지 못하면 부서에 속하게 하여 지도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아홉 번째,** 철저한 행정으로 보살펴줘야 합니다. 행정이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하여 살피는 일을 말합니다.